

<황조가>의 배경 연구

박인희*

<차 례>

1. 서론
2. <황조가>에서 '황조'
3. 외로움[獨]의 의미
4. 외로움의 확장
5. <황조가> 배경
6. 결론

<국문초록>

고구려 유리왕이 부른 <황조가>는 외로운 신세를 탄식하는 노래이다. 그런데 <황조가>가 불려진 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황조, 즉 꿩꼬리는 여름 철새라는 사실 때문이다.

<황조가>는 삼국사기에 유리왕 3년 기록에 실려있다. 주목할 점은 치회와 화회의 다툼 기록에 이어 실려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두 여인의 다툼이 황조가의 배경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꿩꼬리는 음력 10월에 북쪽 지방에서 발견할 수 없다. 유리왕이 꿩꼬리를 본 것은 이때가 아니라 다른 때이다. 그러므로 <황조가>는 원래 다른 일이 원인이 되어 부른 노래이다.

<황조가>에서 찾을 수 있는 정조는 외로움이다. 유리왕이 외로움에 빠졌던 것은 아버지의 부재를 자각했을 때이다. 특히 유리왕은 자신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더 느꼈을 수 있다. 고구려에 와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만다. 유리왕의 외로움은 해소되지 못했고, 어머니도 다시

* 안양대학교

홀로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 봄이 <황조가>가 불러졌을 때로 보인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 해 봄, 유리왕이 아버지의 묘를 다녀오다 꾀꼬리를 보고 자신과 어머니의 신세에 빗대어 <황조가>를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유리왕이 부른 <황조가>는 치희와 화희의 다툼에도 잘 맞아떨어진다. 치희는 돌아가자는 유리왕의 제의를 거절했고, 유리왕은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치희와 화희 다툼에 이어 기록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는다면, 음력 10월에 꾀꼬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황조가>는 이때 불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 불러진 것이어야 맞다. 황조가의 정서로 볼 때 아버지가 죽은 다음해 봄에 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어 : 황조가, 꾀꼬리, 삼국사기, 외로움, 가창시집

1. 서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3년조에 실린 <황조가>에 대한 수많은 논의¹⁾가 있었다. 4언4구로 漢譯된 짧은 노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황조가>가 실린 기사 때문이다. 기사는 계비인 稚姬와 禾姬의 다툼으로 치희가 떠나 유리왕이 데리러 갔으나 치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으며, 유리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황조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1) 그간의 연구는 아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李庚秀, 「黃鳥歌의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99~107쪽.

金榮洙, 「黃鳥歌 研究 再考」, 『韓國詩歌研究』 6, 韓國詩歌學會, 2000, 5~7쪽.

임주탁·주문경, 「<황조가(黃鳥歌)>의 새로운 해석」, 『冠嶽語文研究』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439~442쪽.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치회와 화회의 다툼과 <황조가>의 관련성 여부이다. <황조가>는 두 여인의 다툼에 이어져 소개되었고, 작품의 내용도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조가>를 두 여인의 다툼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에 두 여인의 다툼 앞에 왕비 宋氏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 <황조가>가 언급될 때 “왕이 일찍이 나무 아래 쉴 때(王嘗息樹下)”라고 해서 두 여인의 다툼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황조가>가 송씨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만든다. 이 외에도 치회와 화회라는 이름의 상징성, 유리왕이 노래 불렀다(乃感而歌)는 사실 등도 <황조가>와 관련된 논의를 다양하게 만든 요인들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황조가>의 핵심 소재인 ‘황조’이다. 유리왕 조 기사를 보면 <황조가>는 유리왕 3년조 10월 치회와 화회의 다툼에 이어 등장한다. 그래서 <황조가>는 유리왕이 치회와 헤어진 사실이 동기가 된 작품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황조, 즉 피꼬리가 여름 철새로 음력 10월에 고구려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이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리왕에게 피꼬리는 <황조가>를 낳게 하는 필연적 대상이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여 <황조가>를 풀어가려 한다.

2. <황조가>에서 ‘황조’

<황조가>에서 황조는 일반적으로 피꼬리라고 본다. 피꼬리는 여름 철새로 10월까지 고구려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본 논의²⁾가 있었다. 이들 논의

2) 金琫永, 「黃鳥歌의 새로운 理解」, 『國語國文學』 3,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10쪽.

金聖基, 「黃鳥歌의 戀慕 對象과 創作時點」, 『古詩歌研究』 8, 韓國古詩歌文學會, 2001, 51쪽.

의 지향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황조가>가 치희와 화희의 다툼과 무관하다고 본 점에서는 동일하다. <황조가>가 치희와 화희의 다툼과 무관하다면, <황조가> 3구의 ‘念我之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치희와 화희가 계비였다는 점을 본다면 왕비였던 송씨를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유리왕은 즉위한 다음해 7월 다물후 송양의 딸을 비로 맞았다. 왕비 송씨는 이듬해인 유리왕 3년 10월에 죽는데, 유리왕은 송씨가 죽자 치희와 화희를 계비로 맞이했다. 송씨의 죽음 후 곧바로 두 여인을 계비로 맞이하였다는 점에서 유리왕이 왕비 송씨와 각별한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리왕이 송씨와 각별한 관계였다면,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은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리왕이 계비로 얻은 화희로 인해 유리왕과 송씨의 관계가 각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유리왕은 3년 7월에 鵲川에 離宮을 지었는데, 송씨의 죽음 후 맞이한 화희가 바로 골천인이기 때문이다. 이궁은 왕이 나들이 할 때 머물던 궁으로 이궁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으로 잦은 행차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리왕이 골천에 이궁을 지었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궁을 지었던 골천의 여인인 화희를 송씨의 죽음 후 계비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둘 사이가 각별한 것이었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럴 경우 송씨의 죽음계비로 조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작품이 된다. 더군다나 송씨의 죽음도 10월이었으므로 유리왕과 송씨가 각별하였더라도 황조를 피꼬리로 볼 경우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황조가>를 유리왕이 치희와 이별한 것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황조를 피꼬리로 보지 않을 경우 가능해진다. 최근 임주탁·주문경은 황조를 참새로 볼 수 있음을 밝혀었다. 이 논의에서는 “유리왕이 나무 아래서 본 것은 ‘황조’가 ‘飛集’하는 모습인데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며 나무에 모이는

조용호, 「<황조가>의 求愛民謠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22~23쪽.

것은 ‘피꼬리’의 습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³⁾을 들어 황조가 참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조가 피꼬리나 참새를 모두 칭한다는 점⁴⁾에서 이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황조를 참새로 보면 참새는 텃새여서 10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황조가>의 3구 ‘雌雄相依’에서 ‘雌雄’이다.

참새는 외견상으로 암수를 구별하기 어렵다. 황조를 참새라 했을 때 외견상 암수 구별이 힘든 참새를 보며 유리왕이 ‘雌雄相依’라 했을지 의문이다. 조류도감에 따르면 참새를 언급하면서 암수 구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거나 “암컷은 수컷에 비해 색이 옅다”⁵⁾라는 정도라고만 하였다. 반면 조류도감에 따르면, “암컷과 수컷 모두 눈앞에서 시작하여 눈 주위를 지나 뒷머리에서 좌우가 합해지는 검은색의 띠가 있다(암컷의 띠는 폭이 좁다). 기타 몸의 깃털은 황금색이다(암컷의 몸 깃털은 올리브 녹색이다).”⁶⁾라거나 “수컷이 암컷에 비해 색이 선명하다”⁷⁾, “암컷이 수컷보다 색이 흐리고 눈선의 폭이 좁다”⁸⁾라고 하여 피꼬리는 암수가 구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피꼬리는 “암수의 색깔에 차이가 있어서 멀리서도 날고 있는 두 마리가 한 쌍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⁹⁾는 점이다. 결국 참새처럼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운 새를 보고 ‘雌雄相依’를 떠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유리왕이 참새의 암수를 구별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유리왕은 사냥을 좋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렸을 적에는

3) 임주탁·주문경, 앞의 논문, 459쪽.

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文大辭典』 20, 台灣省立師範大學國文研究所, 1962, 146쪽. 【黃鳥】鳥名 黃鸝也 [爾雅釋鳥皇黃鳥疏] 陸璣云 黃鳥 黃鸝 幽州人謂黃鸝 [郝懿行義疏] 黃鳥即今之黃雀 其形如雀而黃 故名黃鳥 非黃離留也 馬屬云 黃白曰皇 此鳥名皇 知非鶯黃之鳥矣.

5) 윤무부, 『원색도감 한국의 새』, 교학사, 1992, 431쪽.

6) 『原色 韓國鳥類圖鑑』, 禹漢貞·尹茂夫 監修, 아카데미서적, 1989, 594쪽.

7) 윤무부, 앞의 책, 438쪽.

8) 김수일·서정화·김수만, 『한국조류생태도감』 IV, 한국교원대 출판부, 2005, 245쪽.

9) 조용호, 앞의 논문, 10쪽.

참새를 쏘다 잘못해서 물 길는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린 적¹⁰⁾도 있었고, 사냥을 나갔다가 여러 날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¹¹⁾도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유리왕이 사냥을 즐겨했기에 참새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냥을 즐겨했다 해도 참새와 같이 작은 새의 암수를 구별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¹²⁾ 참새는 다갈색이어서 색의 변별이 쉽지 않고, 몸도 작아서 나무에 앉은 새를 보며 몸의 무늬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 피꼬리는 흰색인 노란색이어서 짙거나 옅은 정도가 분명하며, 크기도 참새보다 배나 커서 눈선의 구별이 용이하다.¹³⁾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유리왕이 사냥을 즐겨한 것은 사실이나 참새의 암수를 쉽게 구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황조가>에 등장하는 황조를 피꼬리로 볼 경우, 기사의 시간적 배경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황조를 다른 새(참새)로 보기도 어렵다. 시간적 배경과 어울리지 않음에도 단지 기사의 뒤에 실렸다는 이유로 <황조가>의 직접적인 배경이 치희가 유리왕을 떠난 일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황조가>를 치희와 화희의 다툼 뒤에 실었던 것은 분명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황조가>에서 느껴지는 주된 정조인 외로움[獨]이 치희가 떠나버린 상황과 맞물려 유리왕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유리왕의 입장에서 <황조가>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황조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 ‘幼年出遊陌上彈雀 誤破汲水婦人瓦器’.

1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 三年, ‘後王田於箕山 七日不返’; 二十二年, ‘王田于箕山陰, 五日不返’.

12) 인터넷에 떠도는 구별법으로는 ‘가슴 쪽의 검은 줄이 두꺼운 것이 수컷이고 얇은 것이 암컷’이라고도 한다.

13) 각종 조류도감에 실린 사진을 보면, 수컷은 몸색이 노란색으로 선명하지만 암컷은 색이 옅거나 다른 색의 깃털이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피꼬리의 눈을 중심으로 난 검은 색의 눈선이 수컷은 노란색과 대비되어 분명하게 나 있지만, 암컷은 선이 분명하지 않거나 얇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외로움[獨]의 의미

<황조가>는 치희와 화희의 다툼 끝에 치희가 유리왕을 떠난 기사 뒤에 이어져 <황조가>와 기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노래의 내용도 기사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황조가>가 두 여인의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러진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황조를 피꼬리로 볼 경우 시간적 배경과 맞지 때문이다. 게다가 치희가 떠남으로써 홀로 남겨진 유리왕이 느끼는 외로움은 이미 경험한 바였기 때문이다.

유리왕이 느끼는 외로움을 유리왕과 치희와 관계로만 보면 치희의 떠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지만 유리왕의 외로움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유리왕이 느끼는 외로움은 자신이 어렸을 적 이미 경험한 것이 된다. 유리왕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며, 또한 홀로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이를 통해 남겨진 자의 외로움을 충분히 겪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유리왕은 아버지 주몽이 부여를 떠난 뒤 태어났으므로 대략 B.C. 38~37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유리왕이 왕위를 이은 것은 B.C. 19년이므로 이 때 유리왕의 나이는 19~20살 정도였다. 유리왕이 언제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으리라 보인다. 게다가 아버지의 부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유리왕이 아버지의 부재를 깨닫게 된 것은 “아버 없는 아이라 버릇이 없다”¹⁴⁾라고 물 낚는 여인에게 꾸지람을 들으면서부터이다. 비록 물동이를 깨뜨려서 들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를 깨닫았으리라 보인다. 유리왕이 물 낚는 여인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던 데에는 할머니인 유희 부인의 죽음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B.C. 24

1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 ‘此兒無父 故頑如此’.

년 유화 부인이 죽었을 때 금와왕은 태후의 예로 장사지내고 신묘를 세웠다고 한다.¹⁵⁾ 이는 유화 부인이 생존했을 때만 해도 유리왕과 어머니 禮氏는 부여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 때만 해도 유리왕이 실수로 물동이를 찢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리왕이 물 길는 여인에게서조차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부여에서 유리왕과 어머니 예씨가 처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상황 변화의 원인이 바로 유화 부인의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아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후 유리왕은 비로소 아버지의 부채를 깨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할머니 유화 부인이 죽었던 B.C. 24년부터 아버지 주몽을 만났을 때인 B.C. 19년까지는 유리왕의 나이가 13·14~19·20살 때이다. 유화 부인의 죽음으로 부여에서의 생활은 그리 평탄치 않았을 것이며, 어머니 예씨의 고생도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유리왕에게 아버지의 부채로 인한 고민이 컸을 시기이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시기이다. 이 때 유리왕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였으리라 보인다.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면 그만이고, 어떤 소리를 듣건 상관할 바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비난이 어머니에게 곧바로 향했기 때문에 유리왕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유리왕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였다.

유리왕은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어머니에게 듣고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유리왕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 확인이다.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던 유리왕이 아버지의 생존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하다. 아버지가 살아있기에 당연히 만나고 싶었을 것이며, 만나서 아들임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만나기 위

15)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十四年, ‘王母柳花薨於東夫餘 其王金蛙 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해서 유리왕은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고, 증표를 가지고 가 아버지로 부터 인정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는 어머니 예씨 부인 때문이다. 예씨 부인이 부여를 떠나지 못한 것은 유화 부인이 살았을 때는 유화 부인을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유화 부인이 죽고서도 부여를 떠나지 못한 것은 남편인 주몽이 떠날 때 아들에게 남긴 수수께끼 때문이다. 아들이 수수께끼를 풀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던 곳을 떠날 수 없었다. 성장해서도 유리왕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남편을 찾아갈 면목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유리왕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깨달은 후부터 유리왕은 남겨진 자신과 어머니의 신세와 처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유리왕 자신에게는 아버지의 부재이며, 어머니 예씨 부인에게는 남편의 부재인 상황에서 남겨진 자들이 느끼는 것은 허전함과 외로움이다. 특히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유리왕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유리왕이 이 시기에 느꼈던 것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것이며,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일 것이다.

<황조가>의 3구 ‘念我之獨’에서 외로움[獨]을 치희가 떠난 뒤 남겨진 유리왕이 자신의 신세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한다. 하지만 유리왕은 이미 외로움을 지독하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통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유리왕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황조가>에서 외로움[獨]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4. 외로움의 확장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푼 유리왕은 부러진 단검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로 와서 아버지와 해후한다. 20여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불과 5개월 후 주몽이 승하했기 때문이다. 유리왕은 아버지를, 예씨 부인은 남편을 다시 잃었다. 그런데 유리왕은 아버지 주몽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라는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

주몽은 부여에서 온 아들 유리왕을 곧바로 태자로 삼았었다. 유리왕이 태자에 오르자 주몽이 고구려에서 얻은 두 아들 沸流와 濫祚가 고구려를 떠났다.¹⁶⁾ 『삼국사기』의 기록만으로 유리왕과 비류, 온조 사이에 알력이 나 다툼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유리왕의 등장과 비류, 온조의 남행은 정치적으로 볼 수 있을 소지는 충분하다. 비류, 온조의 남행으로 고구려에서 유리왕은 지위는 굳건해짐 셈이다. 그런데 아버지 주몽의 승하로 유리왕은 급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된다. 주몽이 좀 더 살았더라면 유리왕은 고구려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몽의 승하로 유리왕은 입지를 다질 겨를도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급작스런 왕위 계승은 유리왕에게 부담이었을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고구려에서 유리왕의 지지기반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왕위에 오른 유리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부여에서 따라온 屋智, 句鄒, 都祖 세 사람 뿐이었다. 이 세 사람 역시 타지라 할 수 있는 고구려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즉위 초 유리왕의 정치력은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도 채 안 되어 송양의 딸과 결혼을 한다. 송

16) 『三國史記』, 百濟本紀, 濫祚王, ‘及朱蒙在北夫餘所生子來爲太子 沸流濫祚 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十臣南行’.

양은 주몽에게 항복하기까지 최소 6개월여를 대립관계¹⁷⁾에 있었던 자이다. 그런 사람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송양이 자신의 딸을 유리왕에게 바쳤을 경우와, 둘째는 유리왕의 뜻과 상관없이 송양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앉혔을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정치적 기반이 전무했던 유리왕에게 해될 것은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유리왕의 처지로서는 송양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송양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유리왕은 고구려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부여에서 온 유리왕에게는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보다 송양의 세력이라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유리왕이 송양의 세력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유리왕이 자신의 정치를 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왕비 송씨가 죽자 계비를 곧바로 얻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송양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정치적 기반을 얻었던 유리왕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결혼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주몽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¹⁸⁾도 결혼이었던 것을 보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혼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리왕이 골천에 이궁을 지은 것도 “부단한 정치세력의 포섭과 그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王權의 확고한 安定과 土着化를 꾀함”¹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왕비 송씨가 죽자 곧바로 화희와 치희를 얻은 것은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이유였을 것이다.

유리왕의 이러한 노력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치희와 화희의 다툼이다. 유리왕이 왕비 송씨가 죽자 계비 두 명을 얻은 것

17) 『삼국사기』를 보면 송양은 동명왕 2년 6월에 항복하였다. 그런데 동명왕 2년 기사에 앞서 주몽과 겨루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주몽과 송양의 대립은 최소한 주몽이 나라를 세운 직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몽과 송양의 대립은 최소한 6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一云 朱蒙至卒本夫餘 王無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19) 金龍善, 「高句麗 瑠璃王 考」, 『歷史學報』 87, 歷史學會, 1980, 59쪽.

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화희의 말을 빌어보면 치희는 漢族²⁰⁾이었다. 반면 화희는 유리왕이 이궁을 세웠던 골천 출신이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골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화희는 유리왕과 이미 남다른 관계였을 수 있다. 그런데 왕비 송씨가 죽고 계비를 얻으면서 굳이 한족 출신의 치희도 화희와 함께 얻었다. 이는 유리왕이 지지기반을 넓히고 왕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족 출신의 여인도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화희로 인해 치희는 돌아가게 되고, 유리왕은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치희를 쫓아가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유리왕이 성난 치희를 어쩔 수 없이 보내며 돌아오면서 느꼈던 심정을 배우자를 잃은 슬픔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지지기반을 넓혀 왕권의 안정을 꾀하는 자신을 몰라주는 왕비들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리라 보인다. 화희에게는 자신의 사랑을 받으면서도²¹⁾ 치희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치희에게는 자신이 쫓아가 돌아갈 것을 권했음에도 무시하고 가버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는 왕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유리왕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은 전에도 느낀 바였다. 부여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유리왕은 외로움을 느꼈었다. 이제는 왕이 되어 그런 소리를 들을 처지가 아님에도 유리왕은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외로움은 모두 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여에서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신과 어머니가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아내들로 인해 자신이 외롭게 되었다. 결국 유리왕은 외로울 때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 三年, ‘禾姬罵雄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21) 유리왕이 이궁을 지은 골천 지역의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유리왕과 화희의 관계가 남다른다고 전제할 언급이다.

유리왕에게 외로움은 아버지의 부재를 깨닫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부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자신을 홀로 키우며 사는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 아버지를 만나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아버지가 이내 죽고 말아 외로움이 상쇄될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급작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름으로써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왕 노릇을 해야만 했다. 지지기반이 전혀 없는 왕 노릇은 아버지가 없는 것과 전혀 다른 외로움의 경험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얻은 왕비는 부부간의 정을 채 느끼기도 못한 채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 죽고 만다.²²⁾ 새로이 얻은 계비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어 한 왕비가 떠나고 만다. 결국 유리왕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외로움을 다시 한 번 겪게 된다.

유리왕이 어렸을 적 겪었던 외로움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다면, 성인이 되어 겪은 외로움은 아내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다. 유리왕이 겪은 외로움은 외적인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첫째는 두 경우 모두 외로움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렸을 때는 홀로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외로움이 강화되었고, 커서는 왕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외로움이 강화되었다. 둘째는 외로움이 부부 중 한 명이 부재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는 곧 부부 중 남편의 부재였고, 커서는 치희가 떠난 것은 아내의 부재였다.

유리왕의 외로움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모두 해소되지 못했다. 아버지는 해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치희는 함께 돌아왔으면 됐으나 그러지 못했다. 결국 유리왕은 외로움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이 외로움은 유리왕에게 상처²³⁾로 남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22) 부부간의 정을 채 느끼지 못했다고 단정한 것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 죽었기 때문이다. 왕비가 급사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 병약했거나, 결혼한 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리왕이 왕비와 부부간의 정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3) 유리왕은 후(유리왕 28년)에 아들 解明이 이웃나라에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자

5. <황조가> 배경

『삼국사기』 유리왕 3년 10월, 화희와 치희의 다툼 기사에 이어진 <황조가>는 두 여인의 다툼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유리왕이 부른 노래 속의 황조가 피꼬리가 맞다면, 계절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두 여인의 다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관련이 없음에도 두 여인의 다툼에 이어 <황조가>를 실어놓은 것은 둘 사이에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 사이의 관련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유리왕이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황조가>는 유리왕이 불렀고, 두 여인의 다툼에도 유리왕이 존재한다. 둘째는 외로운 처지에 처한 인물과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황조가>에는 암수 한 쌍의 다정한 피꼬리와 대비되는 외로운 신세의 시적 화자가 등장하고, 두 여인의 다툼으로 유리왕은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황조가>와 두 여인의 다툼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두 여인의 다툼과 <황조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에는 분명히 황조가 날아 모여든 것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다.²⁴⁾ 그러므로 불려진 때는 시기적으로 봄이나 여름임이 분명하다. 두 여인의 다툼과 직접적인 관련까지 있으려면 유리왕 3년 10월 이후의 봄이나 여름, 즉 유리왕 4년 이후인 셈이다. 이럴 경우 왜 3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삼국사기』의 기록에 ‘嘗’이라는

결토록 시킨 적다고 자결토어려서 다고 자결토어려서 다고외로움 속에서 자랐던 유리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다고자결하도록 명했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자결 토어쩌면 이는 자신의 어렸을 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의 상처의 결과일 지도 모른다. 유리왕과 아들들의 관계를 비롯한 유리왕에 대한 비판에 논의는 아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金昌龍, 「<黃鳥歌>의 底邊」, 『한성어문학』 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8, 17~32쪽.

2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 三年, ‘王嘗食樹下 見黃鳥飛集 乃感而歌曰’.

표현을 했다는 점이다. ‘嘗’은 “한문의 관습상 과거의 어느 때에 한번 있었던 일을 후변법으로 제시할 때 사용하는 언어표지”²⁵⁾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받아들이면 <황조가>는 두 여인의 다툼이 있기 전에 불렀던 것이 된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받아들인다면, <황조가>와 두 여인의 다툼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언급한 것처럼 <황조가>와 두 여인의 다툼은 관련이 있지만 그 관련은 간접적인 것일 뿐이다. 또한 <황조가>는 두 여인의 다툼이 있기 전에 유리왕이 불렀던 노래가 된다. 두 여인의 다툼이 있기 전에 불렀다고 보면, <황조가>에 등장하는 피꼬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두 여인이 다툼 10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에 구애될 필요가 없이 유리왕이 봄에 불렀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유리왕이 <황조가>를 불렀을 때를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리왕에게 외로움은 치회와 화회의 다툼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이다. 외로움에 빠진 유리왕이 <황조가>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느끼는 외로움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유리왕이 외로움을 가장 심하게 느꼈을 때는 아마도 다음의 세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아버지의 부재를 깨달았을 때이다.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신에게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유리왕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둘째는 고구려로 와 아버지를 만났으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왕위를 이었을 때이다. 아버지로 인한 외로움을 채 풀기도 전이었고, 왕위에 올라 왕으로서 부담감도 컸을 때이다. 셋째는 왕비 송씨의 죽음과 이어 얻은 두 왕비의 다툼이 있었을 때이다. 처음으로 결혼을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왕비가 죽었고, 새로 얻은 왕비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니 유리왕은 혼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둘째이다. 셋째의 경우 이미 <황조가>가 불려지는 것과 맞지 않음을 보았다. 둘째의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25) 조용호, 앞의 논문, 22쪽.

은 아버지로 인한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리왕은 4월에 고구려에 와 곧바로 태자가 되었고 주몽은 9월에 승하였다. 유리왕은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해 7월에 결혼했다. 10개월간 유리왕은 혼자였다. 물론 어머니 예씨 부인과 부여에서 같이 온 세 명의 동료도 있었지만 이들이 유리왕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리왕의 외로움은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도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박하다. 왜냐하면, <황조가>에서 '誰其與歸'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재를 깨달았을 때 유리왕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왕이 된 사실을 들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만나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셋째가 <황조가>의 배경으로 가장 어울린다고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유리왕은 치회와 돌아왔어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 <황조가>에 등장하는 피꼬리가 계절적 배경과 어울리지 않음에도 연관지어 보았던 것이다. 하여튼 첫째의 경우는 노래와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둘째의 경우 아버지 주몽이 승하였으니 그를 만나러 갔어도 같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죽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러 갈 수는 있다. 유리왕이 龍山에 있는 아버지 주몽의 묘를 찾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유리왕은 주몽의 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쉬다 한 쌍의 피꼬리가 다정스럽게 노는 것을 보고 <황조가>를 불렀을 수 있다. 죽은 아버지는 당연히 함께 돌아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으니 절망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흔히 한 쌍의 피꼬리를 남녀의 관계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유리왕에게 다정한 피꼬리 한 쌍의 모습은 자신을 통해 남녀의 관계로만 투영되는 것이 아니다. 유리왕에게 다정한 피꼬리 한 쌍의 모습은 홀로 자신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도 투영되는 것이다.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어 슬픈 것은 자신이기도 하지만 홀로 남은 어머니 때문이기도 하다. 한 쌍의 피꼬리의 모습을 보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그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왕은 나무 아래서 쉬면서 피꼬리를 보며 <황조가>를 불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두 여인의 다툼에 이어 <황조가>가 실리긴 했지만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황조가>에 등장하는 피꼬리가 계절적으로 맞지 않고, ‘嘗’의 쓰임으로 보아도 맞지 않다. 하지만 두 여인의 다툼으로 인해 유리왕이 겪은 일과 <황조가>의 내용이 두 일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그것은 유리왕이 <황조가>를 자주 불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리왕이 부르는 이 노래가 어떤 의미와, 어떤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불린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두 여인의 다툼 후 이 노래를 부르는 유리왕을 보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더욱이 사람들은 피꼬리를 남녀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을 테니 두 여인의 다툼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황조가>는 한 쌍의 피꼬리를 보면서 혼자 남았음을 자각하고 같이 갈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는 自歎의 노래이다. 유리왕은 이 노래를 아버지 주몽이 승하한 후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면서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유리왕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외로움이 채 해소되지 못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홀로 자신의 키우신 어머니가 또 홀로 지내야 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유리왕이 부르던 이 노래는 치회와 화회의 다툼 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리게 되어 유리왕 3년 기록에 실려 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문학 연구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이 작품 이해를 위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작품보다 작품 외적인 것의 해석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본

고 역시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다.

『삼국사기』에 실린 <황조가>는 치회와 화회의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작품으로 이해하였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 <황조가>는 10월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작품 속의 황조를 피꼬리가 아닌 다른 새 로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嘗’의 사용으로 두 여인의 다툼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본고는 유리왕의 외로움의 근원을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찾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리왕에게 외로움은 아버지의 부재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은 가진 뒤에도, 아내를 잃고 두 연인을 계비로 얻은 후에도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만났지만 외로움을 해소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는 하나 자신의 지지기반이 전혀 없었고, 두 여인의 다툼으로 치회가 가 버리기까지 했다. 유리왕이 외로움과 관련해 절망감까지 느꼈을 때는 아버지를 만나 외로움이 해소될 줄 알았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유리왕은 <황조가>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경우 <황조가>에 등장하는 피꼬리의 계절적 배경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 노래를 유리왕이 종종 불렀다고 본다면 ‘嘗’의 사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황조가>가 치회와 화회의 다툼에 이어 기록되었다고 해서, <황조가>의 내용이 두 여인의 다툼 후 유리왕의 신세와 어울린다고 해서 <황조가>를 두 여인의 다툼과 관련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유리왕 3년 기록은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간과하는 것은 <황조가>를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황조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그런 점에서 <황조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金琫永, 「黃鳥歌의 새로운 理解」, 『國語國文學』 3,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10쪽.

金聖基, 「黃鳥歌의 戀慕 對象과 創作時點」, 『古詩歌研究』 8, 韓國古詩歌文學會, 2001, 51쪽.

김수일 · 서정화 · 김수만, 『한국조류생태도감』 IV, 한국교원대 출판부, 2005, 245쪽.

金榮洙, 「黃鳥歌 研究 再考」, 『韓國詩歌研究』 6, 韓國詩歌學會, 2000, 5~7쪽.

金龍善, 「高句麗 瑠璃王 考」, 『歷史學報』 87, 歷史學會, 1980, 59쪽.

金昌龍, 「<黃鳥歌>의 底邊」, 『한성어문학』 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8, 17~32쪽.

禹漢貞 · 井茂夫 監修, 『原色韓國鳥類圖鑑』, 아카데미서적, 1989, 594쪽.
윤무부, 『원색도감 한국의 새』, 교학사, 1992, 431쪽.

李庚秀, 「黃鳥歌의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99~107쪽.

임주탁 · 주문경, 「<황조가(黃鳥歌)>의 새로운 해석」, 『冠嶽語文研究』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439~442쪽.

조용호, 「<황조가>의 求愛民謠的 성격」,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22~23쪽.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文大辭典』 20, 台灣省立師範大學國文研究所, 1962, 146쪽.

투고일 : 2009년 12월 30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9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Hwangjoga

Park, In-hee

This study is making clear when Hwangjoga was sung for the first time. Hwangjoga is a song to sigh one's lonelin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ime that Hwangjoga was sung. Because Hwangio, namely a Chinese oriole, is a migratory bird and thus it can't live in the northern area in October of the lunar calendar.

Hwangjoga was published in the record of the third year of King Yuri in the Samguk-sagi. It should be noticeable that the song was published following the record about discord between Chihi and Hwahi. So, the discord between two women seems to be the background of Hwangjoga. But, a Chinese oriole can't be found in the northern area in October of the lunar calendar. Because a Chinese oriole can't be seen, it doesn't make sense that he sang the song when he saw it. It is not this time but another time that King Yuri saw a Chinese oriole. Therefore, Hwangjoga was sung by originally another reason.

The mood in Hwangjoga is loneliness. When King Yuri was conscious of his father's absence, he sank into an abyss of loneliness. Especially, King Yuri might feel much more loneliness by the figure of his mother who raised him alone. Although he met his father when he came to Goguryeo, soon after that his father passed away. King Yuri's loneliness wasn't relieved and his mother again came to live her life alone. Hwangjoga was sung probably in Spring after his father's death. In the next Spring after his father's death, King Yuri sang Hwangjoga alluded his mother's and his life when he saw a Chinese oriole on the way back from his father's tomb.

By the way, Hwangjoga sung by King Yuri matches well the discord between Chihi and Hwahi, too. Chihi declined King Yuri's offer to return and he had no choice but to return alone. Therefore, it was recorded following the discord between Chihi and Hwahi.

If the record in the Samguk-sagi is believed,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re can't be a Chinese oriole in October of the lunar calendar. If so, it is right that Hwangjoga was already sung before the time not then. Judging from the mood in Hwangjoga, it is highly likely that Hwangjoga was sung in the next Spring after his father's death.

Key words : Hwangjoga, Chinese oriole, Samguk-sagi, loneliness, the time that a sing is sung